

# 경영활동 중요도 평가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the Management Activities' Importance Perception on the Business Performance

김수현\*, 이상규\*\*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산업연구원\*\*

Soo-Hyun Kim(kimsoo@pcu.ac.kr)\*, Sang-Kyu Lee(leesag@kiet.re.kr)\*\*

### 요약

본 논문에서는 기업이 경영활동들에 대해 생각하는 중요성 정도를 경기 침체 전후로 구분하여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활동 요인을 발견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별로, 기업이 참여하는 정부 지원정책 유형별로 경영활동별 중요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기침체 이전과 이후에 동일하게 주로 '국내 외부 기술 도입'과 '신제품 출시' 등의 경영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추가적으로 경기침체 이전에는 '외국 외부 기술 도입' 활동이, 경기침체 이후에는 '자금조달' 활동이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IT기업과 비IT기업,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 그리고 참여한 정부 지원정책이 다른 기업별로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경영활동은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즉, 경영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경영활동의 지원은 모든 기업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것보다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중심어 : | 경영성과 | 산업정책 | 경영활동 | 경기침체 | 회귀분석 |

### Abstract

In this pap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usiness performance and the importance perception of management activities is analyzed. The analysis is conducted by dividing the analysis time-frame into before and after the economic recession. In addition, we consider the type of industry and the type of government support policy that the companies participate in.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management activiti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domestic external technologies and the release of new products, are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business performance for both before and after the economic recession. The introduction of foreign external technologies is significant before the economic recession, but after the economic recession the fund raising activity is shown to be significant. Management activities that affect business performance of large/small businesses, IT/non-IT companies, high/low R&D firms and the companies participated in various government support policies are different. In other words, it can be found that the support of management activities that can enhance performance should be done in an appropriate wa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any rather than being provided to all companies in common.

■ keyword : | Business Performance | Industrial Policies | Management Activities | Recession | Regression Analysis |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배재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임.

접수일자 : 2018년 08월 03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8월 30일

수정일자 : 2018년 08월 30일

교신저자 : 김수현, e-mail : kimsoo@pcu.ac.kr

## I. 서론

기업은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연구개발, 기술도입, 인력관리, 자금관리, 마케팅관리, 설비투자 등 다양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영활동이 얼마나 유의하게 경영성과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많이 이루어져왔는데, 대표적으로 연구개발 등의 기술혁신[1][2]을 통해, 기업의 활동 범위를 국제화함으로써[3], 특허 출원 및 확보를 통해[4], 환경경영[5], 최고경영자의 네트워크 활용[6]을 함으로써 경영성과가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주요 요인으로는 정부의 규제를 들 수 있다[7]. 정부가 실시하는 산업정책에 따른 다양한 규제는 기업별로 경영성과를 창출하는데 경우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경영성과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경영활동에 대한 시각도 경기가 호황이었을 때와는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즉, 경기 호황인 경우와 경기 침체인 경우 기업이 수행하는 경영활동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경영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산업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경기 침체일 때 또는 경기 호황일 때 어느 경영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기존에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경기 침체 전과 후를 비교하는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이 경영활동들에 대해 생각하는 중요성 정도를 경기 침체 전후로 구분하여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활동 요인을 발견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별로, 기업이 참여하는 정부 지원정책 유형별로 경영활동별 중요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 II.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수행하는 다양한 경영활동에 대해 기업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정도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경기침체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경기침체의 기준년도는 연간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한 2012년으로 정하였다[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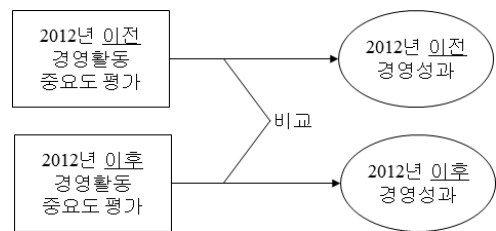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기업의 경영활동은 [표 1]과 같은 15개의 활동을 고려하고자 한다[9].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인사, 생산, 마케팅, 재무 등 다양한 경영활동들이 포함되어 있다.

표 1. 경영활동 항목

1. 연구개발 설비, 2. 연구개발 재료, 3. 자체 신기술의 확보,
4. 국내 외부 기술 도입, 5. 국내 외부와의 기술개발 협력,
6. 외국 외부 기술 도입, 7. 외국 외부와의 기술개발 협력,
8. 인력관리(인력 조달 및 재배치), 9. 자금조달, 10. 생산 공정 개선,
11. 설비투자 확대, 12. 신제품 출시, 13. 마케팅 강화,
14. 판매 유통망 확대, 15. 타 기업과의 마케팅 혹은 판매 제휴

경영성과의 측정은 연구자별로 다양한 사례[10][11]가 존재하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경영성과로 이윤, 매출액, 시장점유율, 생산성, 주가 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경영성과의 측정은 자료의 이용 가능성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현실이고, 많은 경우 기업의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을 또는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매출액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데이터

분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한국증권거래소(KOSPI)와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 제조업(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 포함)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성장 경제 극복을 위한 기업 R&D 투자활성화 방안 도출” 설문조사[9]와 NICE평가정보의 KISVALUE[12]에서 구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은 전체 400개에 해당하며, 이 중에 2012년을 기준으로 이전 그리고 이후 3년까지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30개의 기업은 분석에 사용되지 않아 370개 기업이 전체 표본에 해당한다.

표 2. 전체 표본 370개 기업의 유형별 분류

구분		기업 표본 수
기업 규모	대기업	103
	중소기업	267
업종	IT	76
	비IT	198
	의약/화학	96
연구개발 투자 비중	매출액 대비 5% 초과	108
	매출액 대비 5% 이하	262
연구개발 정책 사업 참여 (중복 가능)	공동연구	298
	금융지원	275
	사업화	151
	인력양성	120
	인프라지원	162

기업이 수행하는 경영활동에 대한 중요도 평가는 설문조사를 통해 2012년 이전 그리고 이후 각각 5점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답변)로 측정하였다. 즉, 경기침체 이전과 이후에 중요도 평가가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각각 답변을 요구하였다. 기업의 매출액은 NICE평가정보의 KISVALUE에서 기업별 재무제표를 조회하여 확인하였다.

#### 2. 분석방법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수행하는 경영활동에 대한 중요도 평가가 경영성과(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종속변수는 매출액을 자연로그 변환하여 사용하였고, 독립변수는 기업이 수행하는 경영활동에 대한 중요도 평가(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모형 별로 독립변수(경영활동 변수 15개)를 모두 투입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면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로 인해 회귀모형의 유의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에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만으로 회귀모형을 구성하여 회귀모형의 유의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단계적 회귀분석의 독립변수 투입 방법을 후진제거(Backward Elimination)법을 사용하였다. 후진제거법은 독립변수를 모두 포함시킨 모형에서 분석을 시작하여 가장 영향력이 적은 변수를 제거하면서 더 이상 제거할 변수가 없을 때 중단하고 최종 회귀모형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 IV. 분석결과

#### 1. 전체표본

표 3. 전체표본 분석결과

경기침체 이전		경기침체 이후	
유의한 경영활동	회귀계수	유의한 경영활동	회귀계수
4. 국내 외부 기술 도입	-0.313***	4. 국내 외부 기술 도입	-0.164*
6. 외국 외부 기술 도입	0.291***	5. 국내 외부와의 기술개발 협력	0.161*
11. 설비투자 확대	0.210**	-	-

주1: \*는 10% 내에서, \*\*는 5% 내에서, \*\*\*는 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주2: 경영활동 15개 항목 중에 유의한 항목만 표시함

경기침체 이전에는 ‘국내 외부 기술 도입’, ‘외국 외부 기술 도입’, ‘설비투자 확대’의 중요도가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외국 외부 기술 도입’과 ‘설비투자 확대’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증가하고, ‘국내 외부 기술 도입’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침체 이후에는 ‘국내 외부 기술 도입’과 ‘국내 외부와의 기술개발 협력’의 중요도가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국내 외부와의 기술개발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증가하고, ‘국내 외부 기술 도입’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경기침체 전후 동일하게 ‘국내 외부 기술 도입’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매출액이 감소하며, 경기침체 이전에는 ‘외국 외부 기술 도입’과 ‘설비투자 확대’ 의지가 큰 경우, 그리고 경기침체 이후에는 ‘국내 외부와의 기술개발 협력’ 의지가 강한 경우에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2. 기업 규모별

### 1) 대기업

대기업의 경우, 경기침체 이전에는 ‘국내 외부 기술 도입’의 중요도가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국내 외부 기술 도입’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침체 이후에는 ‘연구개발 설비’, ‘자체 신기술의 확보’, ‘국내 외부 기술 도입’, ‘신제품 출시’의 중요도가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연구개발 설비’와 ‘자체 신기술의 확보’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증가하고, ‘국내 외부 기술 도입’과 ‘신제품 출시’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대기업 분석결과

경기침체 이전		경기침체 이후	
유의한 경영활동	회귀계수	유의한 경영활동	회귀계수
4. 국내 외부 기술 도입	-0.310*	1. 연구개발 설비	0.363**
-	-	3. 자체 신기술의 확보	0.341*
-	-	4. 국내 외부 기술 도입	-0.348**
-	-	12. 신제품 출시	-2.464**

주1: \*는 10% 내에서, \*\*는 5% 내에서, \*\*\*는 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주2: 경영활동 15개 항목 중에 유의한 항목만 표시함

즉, 경기침체 전후 동일하게 ‘국내 외부 기술 도입’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매출액이 감소하며, 경기침체 이후에는 ‘연구개발 설비’와 ‘자체 신기술의 확보’ 의지가 강한 경우에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2)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경우, 경기침체 이전에는 ‘연구개발 설비’, ‘연구개발 재료’, ‘외국 외부 기술 도입’의 중요도가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연구개발 설비’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감소하고, ‘연구개발 재료’와 ‘외국 외부 기술 도입’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침체 이후에는 ‘자금조달’과 ‘신제품 출시’의 중요도가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신제품 출시’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증가하고, ‘자금조달’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중소기업 분석결과

경기침체 이전		경기침체 이후	
유의한 경영활동	회귀계수	유의한 경영활동	회귀계수
1. 연구개발 설비	-0.195*	9. 자금조달	-0.142**
2. 연구개발 재료	0.195*	12. 신제품 출시	0.157**
6. 외국 외부 기술 도입	0.220***	-	-

주1: \*는 10% 내에서, \*\*는 5% 내에서, \*\*\*는 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주2: 경영활동 15개 항목 중에 유의한 항목만 표시함

즉, 경기침체 이전에는 ‘외국 외부 기술 도입’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매출액이 증가하며, 경기침체 이후에는 ‘신제품 출시’ 의지가 강한 경우에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3. 업종별

### 1) IT기업

IT기업의 경우, 경기침체 이전에는 ‘마케팅 강화’의 중요도가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마케팅 강화’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매출액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침체 이후에는 ‘국내 외부 기술 도입’과 ‘판매 유통망 확대’의 중요도가 매

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국내 외부 기술 도입’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증가하고, ‘판매 유통망 확대’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 6. IT기업 분석결과

경기침체 이전		경기침체 이후	
유의한 경영활동	회귀계수	유의한 경영활동	회귀계수
13. 마케팅 강화	-0.394**	4. 국내 외부 기술 도입	0.465***
		14. 판매 유통망 확대	-0.349**

주1: \*는 10% 내에서, \*\*는 5% 내에서, \*\*\*는 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주2: 경영활동 15개 항목 중에 유의한 항목만 표시함

즉, 경기침체 이전에 비해 경기침체 시기에는 ‘국내 외부 기술 도입’ 의지가 강한 경우에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 비IT기업

비IT기업의 경우, 경기침체 이전에는 ‘국내 외부 기술 도입’, ‘국내 외부와의 기술개발 협력’, ‘신제품 출시’의 중요도가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국내 외부 기술 도입’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감소하고, ‘국내 외부와의 기술개발 협력’과 ‘신제품 출시’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침체 이후에는 ‘연구개발 설비’와 ‘연구개발 재료’의 중요도가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연구개발 설비’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증가하고, ‘연구개발 재료’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 7. 비IT기업 분석결과

경기침체 이전		경기침체 이후	
유의한 경영활동	회귀계수	유의한 경영활동	회귀계수
4. 국내 외부 기술 도입	-0.470***	1. 연구개발 설비	0.428**
5. 국내 외부와의 기술개발 협력	0.296*	2. 연구개발 재료	-0.343*
12. 신제품 출시	0.347***	-	-

주1: \*는 10% 내에서, \*\*는 5% 내에서, \*\*\*는 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주2: 경영활동 15개 항목 중에 유의한 항목만 표시함

즉, 경기침체 이전에는 ‘국내 외부 기술 도입’보다는 ‘신제품 출시’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매출액이 증가하며, 경기침체 이후에는 ‘연구개발 설비’ 의지가 강한 경우에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 의약/화학 기업

의약/화학기업의 경우, 경기침체 이전에는 ‘연구개발 재료’와 ‘외국 외부와의 기술개발 협력’의 중요도가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연구개발 재료’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감소하고, ‘외국 외부와의 기술개발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침체 이후에는 ‘설비 투자 확대’의 중요도가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데, ‘설비투자 확대’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매출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 8. 의약/화학 기업 분석결과

경기침체 이전		경기침체 이후	
유의한 경영활동	회귀계수	유의한 경영활동	회귀계수
1. 연구개발 재료	-0.515**	11. 설비투자 확대	0.525**
7. 외국 외부와의 기술개발 협력	0.408**	-	-

주1: \*는 10% 내에서, \*\*는 5% 내에서, \*\*\*는 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주2: 경영활동 15개 항목 중에 유의한 항목만 표시함

즉, 경기침체 이전에는 ‘외국 외부와의 기술개발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매출액이 증가하며, 경기침체 이후에는 ‘설비투자 확대’ 의지가 강한 경우에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 연구개발 투자규모 비증별

1) 연구개발 투자규모 비중이 높은 기업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경기침체 이전에는 ‘연구개발 설비’와 ‘신제품 출시’의 중요도가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이 ‘연구개발 설비’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감소하고, ‘신제품 출시’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침체 이후에는 ‘자금조달’, ‘설비투

자 확대', '마케팅 강화', '판매 유통망 확대'의 중요도가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이 '설비투자 확대'와 '마케팅 강화'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증가하고, '자금조달'과 '판매 유통망 확대'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 9. 연구개발 투자규모 비중 높은 기업 분석결과

경기침체 이전		경기침체 이후	
유의한 경영활동	회귀계수	유의한 경영활동	회귀계수
1. 연구개발 설비	-0.400**	9. 자금조달	-0.348**
12. 신제품 출시	0.489***	11. 설비투자 확대	0.357*
-	-	13. 마케팅 강화	0.806***
-	-	14. 판매 유통망 확대	-0.636** *

주1: \*는 10% 내에서, \*\*는 5% 내에서, \*\*\*는 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주2: 경영활동 15개 항목 중에 유의한 항목만 표시함

즉, 경기침체 이전에는 '신제품 출시'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매출액이 증가하며, 경기침체 이후에는 '설비투자 확대'와 '마케팅 강화' 의지가 강한 경우에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 연구개발 투자규모 비중이 낮은 기업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낮은 기업의 경우, 경기침체 이전에는 '자체 신기술의 확보', '국내 외부 기술 도입', '외국 외부 기술 도입'의 중요도가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이 '국내 외부 기술 도입'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감소하고, '자체 신기술의 확보'와 '외국 외부 기술 도입'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침체 이후에는 '자체 신기술의 확보', '국내 외부 기술 도입', '외국 외부와의 기술개발 협력', '자금조달', '신제품 출시'의 중요도가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이 '자체 신기술의 확보', '외국 외부와의 기술개발 협력', '자금조달'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증가하고, '국내 외부 기술 도입'과 '신제품 출시'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 10. 연구개발 투자규모 비중 낮은 기업 분석결과

경기침체 이전		경기침체 이후	
유의한 경영활동	회귀계수	유의한 경영활동	회귀계수
3. 자체 신기술의 확보	0.356***	3. 자체 신기술의 확보	0.302**
4. 국내 외부 기술 도입	-0.445***	4. 국내 외부 기술 도입	-0.310**
6. 외국 외부 기술 도입	0.373***	7. 외국 외부와의 기술개발 협력	0.224**
-	-	9. 자금조달	0.178*
-	-	12. 신제품 출시	-0.202*

주1: \*는 10% 내에서, \*\*는 5% 내에서, \*\*\*는 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주2: 경영활동 15개 항목 중에 유의한 항목만 표시함

즉, 경기침체 이전에는 '자체 신기술의 확보'와 '외국 외부 기술 도입'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매출액이 증가하며, 경기침체 이후에는 '자체 신기술의 확보'와 '외국 외부와의 기술개발 협력' 의지가 강한 경우에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5. 정부 지원정책 참여 경험별

1) 공동연구 정책 참여 기업

공동연구 정책 참여 기업의 경우, 경기침체 이전에는 '국내 외부 기술 도입', '외국 외부 기술 도입', '신제품 출시'의 중요도가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이 '국내 외부 기술 도입'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감소하고, '외국 외부 기술 도입'과 '신제품 출시'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침체 이후에는 '국내 외부 기술 도입', '외국 외부와의 기술개발 협력', '신제품 출시'의 중요도가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이 '외국 외부와의 기술개발 협력'과 '신제품 출시'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증가하고, '국내 외부 기술 도입'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경기침체 이전에는 '외국 외부 기술 도입'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매출액이 증가하며, 경기침체 이후에는 '외국 외부와의 기술개발 협력' 의지가 강한 경우에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1. 공동연구 정책 참여 기업 분석결과

경기침체 이전		경기침체 이후	
유의한 경영활동	회귀계수	유의한 경영활동	회귀계수
4. 국내 외부 기술 도입	-0.355***	4. 국내 외부 기술 도입	-0.188*
6. 외국 외부 기술 도입	0.291***	7. 외국 외부와의 기술개발 협력	0.176*
12. 신제품 출시	0.234**	12. 신제품 출시	0.172*

주1: \*는 10% 내에서, \*\*는 5% 내에서, \*\*\*는 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주2: 경영활동 15개 항목 중에 유의한 항목만 표시함

### 2) 금융지원 정책 참여 기업

금융지원 정책 참여 기업의 경우, 경기침체 이전에는 ‘국내 외부 기술 도입’과 ‘외국 외부와의 기술개발 협력’의 중요도가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이 ‘국내 외부 기술 도입’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감소하고, ‘외국 외부와의 기술개발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침체 이후에는 ‘연구개발 설비’와 ‘연구개발 재료’의 중요도가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이 ‘연구개발 설비’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증가하고, ‘연구개발 재료’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 12. 금융지원 정책 참여 기업 분석결과

경기침체 이전		경기침체 이후	
유의한 경영활동	회귀계수	유의한 경영활동	회귀계수
4. 국내 외부 기술 도입	-0.233**	1. 연구개발 설비	0.229*
7. 외국 외부와의 기술개발 협력	0.301***	2. 연구개발 재료	-0.236*

주1: \*는 10% 내에서, \*\*는 5% 내에서, \*\*\*는 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주2: 경영활동 15개 항목 중에 유의한 항목만 표시함

즉, 경기침체 이전에는 ‘외국 외부와의 기술개발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매출액이 증가하며, 경기침체 이후에는 ‘연구개발 설비’ 의지가 강한 경우에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3) 사업화 정책 참여 기업

사업화 정책 참여 기업의 경우, 경기침체 이전에는 ‘자체 신기술의 확보’, ‘국내 외부 기술 도입’, ‘외국 외부

기술 도입’, ‘마케팅 강화’의 중요도가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이 ‘국내 외부 기술 도입’과 ‘마케팅 강화’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감소하고, ‘자체 신기술의 확보’와 ‘외국 외부 기술 도입’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침체 이후에는 ‘국내 외부와의 기술개발 협력’, ‘자금조달’, ‘마케팅 강화’의 중요도가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이 ‘국내 외부와의 기술개발 협력’과 ‘자금조달’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증가하고, ‘마케팅 강화’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 13. 사업화 정책 참여 기업 분석결과

경기침체 이전		경기침체 이후	
유의한 경영활동	회귀계수	유의한 경영활동	회귀계수
3. 자체 신기술의 확보	0.351**	5. 국내 외부와의 기술개발 협력	0.233*
4. 국내 외부 기술 도입	-0.561***	9. 자금조달	0.278**
6. 외국 외부 기술 도입	0.422***	13. 마케팅 강화	-0.343**
13. 마케팅 강화	-0.335**	-	-

주1: \*는 10% 내에서, \*\*는 5% 내에서, \*\*\*는 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주2: 경영활동 15개 항목 중에 유의한 항목만 표시함

즉, 경기침체 이전에는 ‘자체 신기술의 확보’와 ‘외국 외부 기술 도입’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매출액이 증가하며, 경기침체 이후에는 ‘국내 외부와의 기술개발 협력’과 ‘자금조달’ 의지가 강한 경우에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4) 인력양성 정책 참여 기업

인력양성 정책 참여 기업의 경우, 경기침체 이전에는 ‘국내 외부 기술 도입’, ‘외국 외부와의 기술개발 협력’, ‘신제품 출시’의 중요도가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이 ‘국내 외부 기술 도입’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감소하고, ‘외국 외부와의 기술개발 협력’과 ‘신제품 출시’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경기침체 이후에는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경영활동 중요도를 발견할 수 없었다.

표 14. 인력양성 정책 참여 기업 분석결과

경기침체 이전		경기침체 이후	
유의한 경영활동	회귀계수	유의한 경영활동	회귀계수
4. 국내 외부 기술 도입	-0.403*	-	-
7. 외국 외부와의 기술개발 협력	0.431***	-	-
12. 신제품 출시	0.346*	-	-

주1: \*는 10% 내에서, \*\*는 5% 내에서, \*\*\*는 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주2: 경영활동 15개 항목 중에 유의한 항목만 표시함

5) 인프라 지원 정책 참여 기업

인프라지원 정책 참여 기업의 경우, 경기침체 이전에는 ‘자체 신기술의 확보’, ‘국내 외부 기술 도입’, ‘외국 외부와의 기술개발 협력’의 중요도가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이 ‘국내 외부 기술 도입’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감소하고, ‘자체 신기술의 확보’와 ‘외국 외부와의 기술개발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침체 이후에는 ‘자체 신기술의 확보’와 ‘국내 외부 기술 도입’의 중요도가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이 ‘자체 신기술의 확보’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증가하고, ‘국내 외부 기술 도입’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 15. 인프라지원 정책 참여 기업 분석결과

경기침체 이전		경기침체 이후	
유의한 경영활동	회귀계수	유의한 경영활동	회귀계수
3. 자체 신기술의 확보	0.259*	3. 자체 신기술의 확보	0.286**
4. 국내 외부 기술 도입	-0.400***	4. 국내 외부 기술 도입	-0.382***
7. 외국 외부와의 기술개발 협력	0.293**	-	-

주1: \*는 10% 내에서, \*\*는 5% 내에서, \*\*\*는 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주2: 경영활동 15개 항목 중에 유의한 항목만 표시함

즉, 경기침체 이전과 이후에 동일하게 매출액이 ‘자체 신기술의 확보’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증가하고, ‘국내 외부 기술 도입’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감소하며, 경기침체 이전에는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던 ‘외국 외부와의 기술개발 협력’ 의지가 경기침체 이후에는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앞에서 제시한 경영활동의 중요도 평가가 경영성과(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기침체 이전과 이후에 동일하게 주로 ‘국내 외부 기술 도입’과 ‘신제품 출시’ 등의 경영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외부 기술 도입’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매출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국내 외부 기술을 도입한다고 해도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미약하고 오히려 다른 경영활동에 투자를 줄이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추가적으로 경기침체 이전에는 ‘외국 외부 기술 도입’ 활동이, 경기침체 이후에는 ‘자금조달’ 활동이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침체되기 이전에는 기업들이 외부 기술을 도입해서라도 신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출시함으로써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경기침체 시기에는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신제품 출시 등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하여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결국,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지원이 상시 필요하며, 경기침체 시기에는 기업들이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IT기업과 비IT기업,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 그리고 참여한 정부 지원정책이 다른 기업별로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경영활동은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즉, 경영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경영활동의 지원은 모든 기업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것보다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경영성과인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다양한 경영활동에 대해 기업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여 분석한 것이다. 매출액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 내외부의 많은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고려한 요인들만으로는 매출액 결정요인의 일부분



만을 설명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김광두, 홍운선, “혁신활동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술혁신학회지, pp.373-404, 2011.
- [2] 장광순, 김용범, 구일섭, “기업의 혁신활동과 경영성과와의 관계: 국내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품질경영학회지, 제38권, 제4호, pp.512-520, 2010.
- [3] 강석민, “기업의 국제화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국제경영리뷰, 제15권, 제2호, pp.69-86, 2011.
- [4] 길상철, 강석민, “특허경영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술혁신학회지, 제11권, 제2호, pp.171-193, 2008.
- [5] 강민석, 최현석, 박병춘, “환경경영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제22권, 제3호, pp.523-536, 2011.
- [6] 최애희, 박진아, 김윤호, 이재원, “최고경영자 기업인 네트워크 활동이 기업역량을 매개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2호, pp.188-199, 2018.
- [7] 이상규, 김수동, 김수현, “신산업 분야의 규제 도입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6권, 제11호, pp.179-187, 2016.
- [8]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9] 산업연구원, 저성장 경제 극복을 위한 기업 R&D 투자 활성화 방안 도출, 2017.
- [10] J. G. March and R. I. Sutt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as a dependent variable,” Organization Science, Vol.8, No.6, pp.698-706, 1997.
- [11] G. Lang, “Measuring the returns of R&D-An empirical study of the German manufacturing sector over 45 years,” Research Policy 38, pp.1438-1445, 2009.
- [12] NICE신용평가정보, [www.kisvalue.com](http://www.kisvalue.com)

저 자 소 개

김 수 현(Soo-Hyun Kim)

종신회원



- 1997년 2월 : 한국과학기술원 (KAIST) 경영과학(공학박사)
- 1997년 3월 ~ 2003년 2월 : 한국 전자통신연구원(ETRI) 선임연구원
- 2003년 3월 ~ 현재 :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 정보통신경영, e-비즈니스, 최적의사결정모형

이 상 규(Sang-Kyu Lee)

정회원



- 1996년 8월 :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산업경영(박사)
- 1997년 11월 ~ 2004년 8월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선임연구원
- 2006년 12월 ~ 현재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관심분야> : 신기술 분야, 산업정책